

투데이 칼럼

건강하고 안전한 농업농촌 실현 위한 농업인 안전 보험 확대 시행

코로나9 백신 예방접종 지원을 나간 적이 있다.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신 어르신들께 손소독제를 뿌려드리는 일이었다. 이제는 힘한 노동은 할 수 없을 만큼 연세가 많은 분들이 손소독을 위해 내민 손에는 수십 년 간 딱딱한 생선하나라 잡초와 싸우고 흙과 씨름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끝은살이 박힐 대로 박혀 울퉁불퉁해진 두 손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 편이 먹먹해졌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응이 박힌 채라도 남아 있지 못하고 잘려나가고 없는 손가락들이었다.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 되면서 농촌은 농번기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9가 장기화 되면서 농촌 노동력 공백을 채워주던 해외 노동력이 감소하여 그 어려움이 배가 됐다.

이제는 농촌의 노동력 대부분은 기계가 대신하고 있고, 손으로 하는 모내기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모내기부터 김매기, 약치기, 수확까지 모든 농사일은 기계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의 도입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속도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을지 모르나 농기계 사고가 발생 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장영우
정수교수

는 점이다.

산재보험 가입자 중 농업인의 재해율은 우리나라 평균 재해율의 2배에 육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농업재해보험연감에 따르면 농업재해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평균 산업재해의 11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건설업·광업과 함께 농업을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사고 중 농기계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전체 사고의 41%에 달하며, 과도한 한동작으로 인한 손상이 14%, 농기계 운전사고가 13%를 차지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손상이 증가하며, 농업으로 인한 사고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농업으로 인한 질병은 여성이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농업인들의 재해는 어떻게

처리될까?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종사자는 전체 농업인구의 4% 수준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농민이 가입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자는 전체 농업종사자의 63% 정도이다. 즉, 농업인 35%는 일하다 재해를 입을 경우 사회적인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업을 주경제소득으로 하는 정수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사고 싶은 농·산물 생산, 돈 버는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의 보험부담율을 10%에서 5%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전한 영농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무가입제, 산재보험과 같은 연금보험 도입, 보험유형 다양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무가입제 도입, 산재보험과 같은 연

금보험 도입, 보험유형 다양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개선안 중 특히 눈여겨 볼 점이 있다면 개인 또는 부부 단위의 가입을 가족 또는 농장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촌 일손의 주력인 된 이주노동자와 일용직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인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 국가적인 사회보장제도 속에 편입되도록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농민의 삶과 밀접한 농협에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비하면, 국가의 보험료지원도 없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생소한 기관을 직접 찾아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의 문턱은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정부 차원의 대책 모색이 필요한 이유다.

군은 중앙적인 계획을 세워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 농민들이 국가 사회보장제도 속에 편입되도록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농작업 시 농민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농기계 사고 예방 및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꼭 명심할 만 부드란다.

사설

전주 도시공원 매입 문제

전주시가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관내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지난해부터 사들이고 있다. 하지만 토지 매입 속도가 워낙 늦고, 전문학적인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전주시가 사들이기로 한 도시공원은 모두 15곳이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만 9,444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 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사유지에 공원,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다.

전주시는 2제곱킬로미터를 지난해부터 5년 동안 1,450억 원을 들여 우선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산 사유지는 0.11제곱킬로미터에 그치고 있다.

도시공원 토지주들은 전주시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만 할애에 사려고 하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시가 도시공원 사유지를 사들일 재원 마련 계획이 없다며 사유 재산 보호를 위해 공원에서 해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는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주시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50%의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도시공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세대 변화 바람

요즘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대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국내 어느 방송사가 전문가들과 함께 이른바 '세대 인식 집중조사'라는 걸 해봤다.

586세대가 포함된 50대, 그리고 20~30대 청년세대, 이렇게 두 세대만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이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50대는 도덕적 확신, 즉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을 거란 믿음이 강하게 나타났다. 본인의 의견대로만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확신'이 높은 사람들이다.

즉 세상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는 것이다. 이는 50대 전체 인구 중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한 비중은 크지 않더라도, 군사독재에 맞섰던 시대 기류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부분의 세대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

다. 50대의 경우, 본인들 50대를 능력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결과 파악을 한다.

50대는 걸로서는 민주적이지만 실제로는 권위적이라는 평가도 많다. 586세대는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도 많다.

현 정부 책임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개인적 이득을 보았을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과 무관치 않은 대목이다.

청년들은 또 다른 연령대보다 복지, 환경 문제 등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인식 차이가 크다. 청년층의 경우 같이 잘 살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반면 청년층은 계층 의식이 높아질수록 큰 정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세대론이 세대 간 또는 세대 내의 견 차이에만 집중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문제를 주거의 문제, 빈곤의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복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긴급사태 선언 속 출근하는 도쿄 시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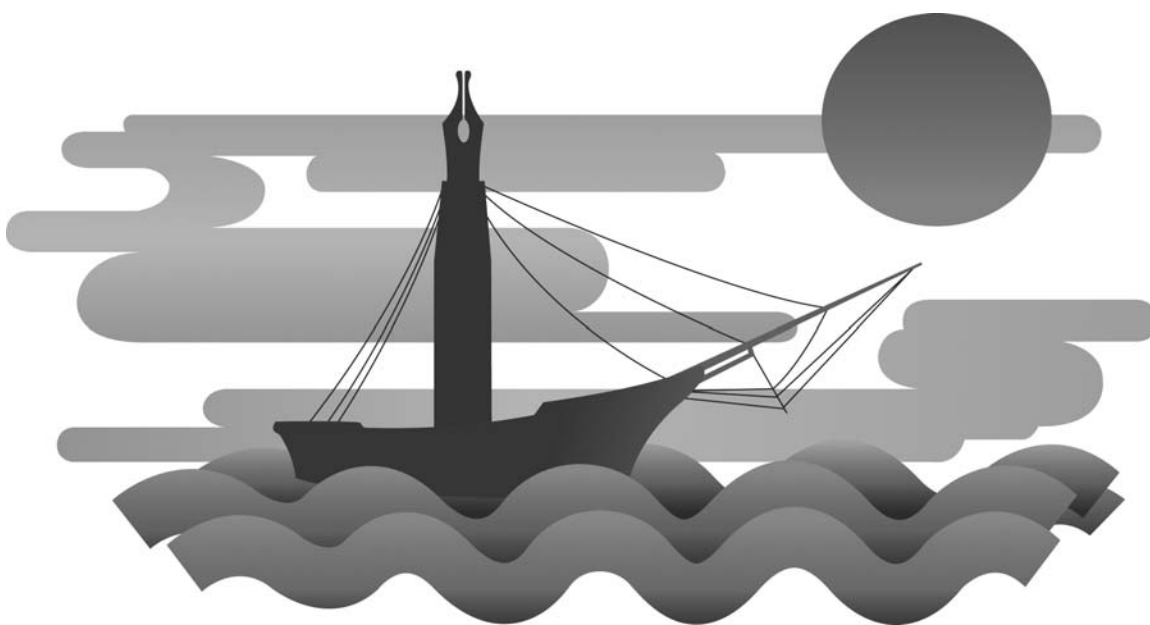


12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에서 마스크 쓴 시민들이 통로를 걸어가고 있다. 일본의 수도이자 2020 도쿄 올림픽 개최지인 도쿄도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코로나19 관련 4번째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은 긴급사태 선언 아래 치러진다.

'기록적인 무더위' 온도계와 기념사진



1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여행객들이 50도를 가리키는 온도 표지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9일 캘리포니아 남동부 모하비 사막의 데스밸리 기온이 54도를 기록하는 등 서부 지역이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습이 일어나 민간인 등 10여 명이 사망했다고 구조대가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공습 사실을 부인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